

광주·전남 27곳 광역·기초의회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

민주, 의장단 '독식' ... 곳곳서 '뒤탈'

'자리 나눠먹기' 등 구태 의원 간 갈등

첫 회기부터 파행 ... 후유증 뒤따를 듯

광주·전남지역 29곳 광역·기초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거의 마무리 지었지만, 곳곳에서 '자리 나눠먹기' 등 구태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나주·화순 아직 진통

◇'민주' 싹쓸이=9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29곳 광역·기초의회 중 나주시와 화순군의회를 제외한 27곳의 광역·기초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첫은 중앙당의 지침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지방의회에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전과기록 등 경력에 '문제가 있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뽑히거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선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 간 '자리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고, '자리 욕심'을 위해 편을 가르면서 하반기 의정 활동이 의원들 간 갈등으로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의장, 부의장. 광주: 조호권(민), 송경중(민), 나종천(민). 전남: 김재우(민), 임명규(민), 송주호(민).

■광주·전남 기초의회 하반기 의장단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의장, 부의장. 광주: 동구 채명희(민), 남순심(민), 서구 장재성(민), 이은주(진), 남구 박춘수(민), 남경민(민), 북구 김동천(민), 마광민(민), 광산구 차경섭(민), 최경미(진).

◆전남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의장, 부의장. 목포 배중범(민), 허정민(진), 여수 박정재(민), 최대식(민), 순천 김대희(민), 정영태(민).

◇민주당 내 의원들간 '갈등'=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놓고 구태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류·비주류 싸움

광주시의회는 경우 조호권 의장을 만들어 낸 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초선의원들이 그들을 형식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힘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 간 '자리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고, '자리 욕심'을 위해 편을 가르면서 하반기 의정 활동이 의원들 간 갈등으로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구와 광산구의회의 경우 당내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약속을 어기고 후보로 등록하는 사태도 빚어져 진통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직사퇴 등 반발

◇곳곳에서 '후유증'=광주 동구의회는 부의장 선출에 반발한 통합진보당 안병강 의원과 무소속 김동현 의원이 상임위 간사를 사퇴하는 등 보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광산구의회도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열음을 보이더니 첫 회기부터 갈등이 일어났다. 9일 열린 하반기 1차 정례회 및 상임위원회가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불참으로 인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7월 16일 이전 선출예정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의장, 부의장. 목포 배중범(민), 허정민(진), 여수 박정재(민), 최대식(민), 순천 김대희(민), 정영태(민), 나주 7월 16일 이전 선출예정, 광양 이정문(민), 정현원(민), 담양 전정철(민), 조홍천(민), 곡성 김중국(민), 이만수(민), 구례 김성현(민), 문길선(민), 고흥 박금례(민), 배기홍(민), 보성 안길섭(민), 김판선(민), 화순 7월 16일 선출예정, 장흥 미재주(민), 객태수(민), 강진 윤재공(민), 김상윤(민), 해남 박희재(민), 이길운(민), 영암 김연일(민), 유호진(민), 무안 임덕수(민), 정길수(민), 함평 안규모(민), 정수길(민), 영광 나승만(민), 김봉환(민), 장성 김형훈(민), 차상현(민), 원도 김정술(민), 박성규(민), 진도 장영태(민), 주선중(민), 신안 양영모(민), 박용찬(민).

\*민=민주통합당 진=통합진보당

있으며, 당내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차경섭 의원이 의장이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차 의장이 통합진보당에 부의장 자리를 내주고 의장에 당선된 것은 '해당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하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는 '단합'을 과시했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민주당 내부 경선으로 선출된 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되면서 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지사 15일 대선출마 선언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이벤트성 행사 자제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

박준영 전남지사가 오는 15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지사 측은 9일 "당초 1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정책공약 준비와 조직 정비 등을 고려해 15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 라인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 장소로 상징성이 있는 김대중도서관 등을 건의했으나 박 지사가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입장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는 또한,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구 민주계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사는 민주통합당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최소한 컷-오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1일 여의도에서 회동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내년도 국고 예산 문제와 대선에서의 지역 공약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박준영 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컷-오프에서 박 지사 지지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신중한 태도도 엿보인다.

박 지사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할 경우,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상당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선 경선 판도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박 지사가 15일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는 점에서 11일 회동에서는 컷-오프 문제가 집중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박 지사의 대선 출마가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컷-오프에서 지지 여부를 놓고 전남 의원들간 의견 교환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은 다음달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2012 대선 공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동영 "대선 불출마"

모든 것 내려놓고 정권교체의 길 가겠다

민주 예비경선전 본격화

대선 출마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온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9일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저를 바치겠다"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대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5년 전 대선 패배로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바 있다"며 "이번에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3년 전 용산참사를 보면서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용산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도 미사 가운데 문정현 신부님이 '저기 앉아있는 정동영 의원이 조금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던 말씀은 아직도 제 귀에 쟁쟁 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진보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이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저에게 내려진 사명이며 새로운

길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가 돼 경제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며 "후보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가치와 정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고문은 앞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특정 경선캠프에 가담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당화합을 위한 물질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5명의 본경선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컷오프)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오는 15일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대선후보는 모두 7명. 이들 중 문재인·손학규·김두관 후보가 3강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가 뒤를 따르는 형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박준영·조경태·김영환 후보가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현문 앞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도중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연필뉴스

Cartoon titled '빛의만평' by Kim Jung-do. It depicts a man with a speech bubble saying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A country where my dream is realized) and another man saying '포기' (Give up). The cartoon is signed '김준두'.

Large advertisement for 'Fantastic Jeju' travel agency. It features various travel packages including 'Jeju Tambang' tours, hotel deals, and golf package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gency and lists of services offered.